

보도자료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Incheon Free Economic Zone

보도분류	브리핑() 보도자료 제공(✓)
보도일시	2021. 6. 18.(금)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과	아트센터인천운영과
담당	과장 홍두호, 공연기획팀장 박지연, 담당 이경란(032-453-7194)

2021 <작곡가 시리즈> 두 번의 무대, 라흐마니노프 피아니스트 백혜선(7월) · 이진상(11월) 협연

세계적인 2인의 피아니스트와 함께하는 '라흐마니노프' 로의 음악 여행
수원시향 상임지휘자 최희준과 KBS교향악단이 펼쳐 보이는 러시아 낭만의 정수

- 아트센터인천이 2021년을 맞아 <작곡가 시리즈>를 선보인다. 시리즈 첫 시작을 알린 작년 '차이콥스키'에 이어 올해 특별한 무대를 채워줄 작곡가는 '라흐마니노프'다.
- 오늘 7월과 11월, 차이콥스키와 더불어 러시아 음악을 대표하는 마지막 낭만주의자이자 피아니스트들이 선정한 '리스트 이래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 등의 여러 수식어를 지닌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세계를 한껏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찾아온다.
- 청중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만을 엄선했던 이번 시리즈의 무대는 광활한 대륙의 서정과 짙은 우수를 모두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향의 예술감독이자 상임지휘자로 재임 중인 최희준이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악단 중 하나인 KBS교향악단과 함께 무대에 올라 피아니스트 백혜선과 이진상을 맞이하여 총 2회에 걸쳐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세계 곳곳을 안내해줄 예정이다.

- 먼저, 7월 10일 피아니스트 백혜선이 아트센터인천을 찾아 공연 1부에서 작곡가의 작품 중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는 작품 가운데 하나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선보인다. 2부에선 교향곡 2번을 만나볼 수 있다.
- 화려한 스케일과 호쾌한 타건, 폭발적인 힘과 동시에 섬세한 기교를 조화롭게 다루는 피아니스트 백혜선은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윌리엄 카펠 콩쿠르 등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며 국내외 음악계로부터 크게 주목받았다. 특히,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수상한 후, '최연소 서울대 교수'라는 수식어를 획득하며 후학양성에 힘썼고, 이후 다시금 온전히 무대로 돌아와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 11월 6일에 선보일 <작곡가 시리즈-라흐마니노프> 두 번째 시간에는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한 '보칼리제'와 교향곡 3번,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진상과 함께하는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Op.43을 선보인다.
- 협연자로 무대에 오를 이진상은 2009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게자 안다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을 거머쥐고 동시에 대회가 개최된 이래 최초로 모든 특별상을 휩쓸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수학한 이진상은 악기와 소리에 대한 이해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스타인웨이 오스트리아에서 세계적인 테크니션 슈테판 크뉴퍼를 사사하며 악기제작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바 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최근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며 발매한 베토벤 트리오 전곡 음반이 크게 호평받았다.
- 이외에도 6월에 아트센터인천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로는 6월 30일(수) 오전 11시 <마티네 콘서트: 김정원의 낭만가도> 두 번째 여행인 <라인강, 그 거룩한 물결 속에>가 펼쳐진다. 바흐의 프렐류드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번 '월광', 테너 김세일이 함께하는 슈만의 '시인의 사랑'을 선보이며 수많은 클래식 거장을 품은 나라, 독일을 조명한다. 아트센터인천이 선보이

는 또 하나의 시리즈, ‘토요일스튜디오’에서도 위대한 독일 출신의 작곡가를 만나볼 수 있다. 6월 26일 오후 3시에 열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삼각관계>에서는 브람스와 슈만, 그리고 클라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피아니스트 손민수의 협연으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과 슈만 교향곡 2번을 선보인다.

- 아트센터인천이 선사하는 다양한 기획 시리즈 무대는 아트센터인천 홈페이지(www.aci.or.kr)와 인터파크, 엔티켓에서 예매 가능하다. 좌석은 코로나 19 공연장 방역지침에 따라 객석 띄어앉기로 운영된다.

[붙임 # 1] <작곡가 시리즈 - 라흐마니노프> 공연 소개



- 일시/장소: 07.10 & 11.06 (토요일 오후 5시)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 티켓가격: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 예매방법: 아트센터인천 홈페이지(www.aci.or.kr), 인터파크, 엔티켓
- 전화문의: 아트센터인천(032-453-7700), 인터파크(1544-1555), 엔티켓(1588-2341)
- 출연:
 - 07.10 백혜선(피아노)/KBS교향악단(최희준 지휘)
 - 11.06 이진상(피아노)/KBS교향악단(최희준 지휘)

아트센터인천 작곡가 시리즈의 두 번째 음악가, 낭만음악의 거장 라흐마니노프를 만나는 시간
아트센터인천 기획 시리즈 <작곡가 시리즈>가 두 번째 해를 맞이했다. 지난해 ‘차이콥스키’에 이어 올해는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쓰일 정도로 대중적이지만, 21세기 이후 재평가받으며 예술성으로도 더욱이 조명받고 있다. 청중이 가장 좋아하는 결작만을 선정한 이번 공연은 라흐마니노프 음악의 진수를 경험할 최고의 시간이 될 것이다. 지휘자 최희준과 KBS교향악단이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이며, 피아니스트 백혜선과 이진상이 각각 협연자로 나서 최고의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 출연진 소개



* 지휘자 최희준

지휘자 최희준은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지휘과에서 디플롬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드레스덴 국립음대 개교 이래 최초로 지휘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독일 전 음대 지휘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 일치로 1위, 바트 훔부르크 지휘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그는 베를린 심포니, 카셀 국립오케스트라, 브란덴부르크 국립오케스트라, 라인란트 팔츠 국립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하였으며 뮌헨 국립 가극장, 하이델베르크 오페라 하우스, 안나베르크 오페라 하우스 등에서 다수의 오페라 공연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였다. 또 라인스 베르크 궁 가극장에서 요른 아르네케 작곡의 <Drei Helden(세 영웅)>을 세계 초연하며 베를린의 주요 일간지인 Berliner Morgenpost로부터 “연주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지휘”라는 호평받았다. 오더 슈프레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모차르트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의 총감독 및 지휘를 맡았으며, 작센 주립극장의 부지휘자로서 다수의 오페라와 발레를 지휘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부천필, 대전시향, 광주시향, 대구시향 등과 객원 지휘로 함께했으며 제41회 난파음악상을 수상했다. 코리안심포니, 전주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를 역임하였고, 현재 한양대학교 지휘전공 교수 및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재직 중이다.



* 피아니스트 백혜선

피아니스트 백혜선은 화려한 스케일, 호쾌한 타건과 기교를 뛰어넘어 심오함과 델리케이트한 서정을 조화롭게 표출해내는 연주자다. 차이콥스키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미국 메릴랜드 윌리엄 카펠 콩쿠르 우승 및 리즈 콩쿠르에 입상하여 국내외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일본 사이타마현 문화예술재단이 선정한 현존하는

<세계100대 피아니스트>에 라두 루푸, 보리스 베레좁스키, 랑랑, 엘린 그뤼모 등과 함께 선정됐고 런던 심포니, 러시아인 내셔널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필, NHK 심포니 등 세계 유수의 악단과 협연했다. 차이콥스키 콩쿠르 수상 직후 ‘최연소 교수’로 임용돼 화제를 모았으나 10년간 재직했던 서울대 교수직을 2005년 홀연히 내려두고 연주에 매진한 백혜선은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9년에는 우리나라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상인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받았다. 미국 클리블랜드 음악원 교수와 부산 국제음악제 감독을 역임 했으며, 현재 보스턴의 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 및 대구 카톨릭대학교 석좌교수로 후진을 양성 중이다.



* 피아니스트 이진상

2005년 쾰른 피아노 콩쿠르, 2008년 홍콩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2009년 스위스 취리히 게자 안다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 우승과 동시에 대회 최초로 모든 특별상을 휩쓸며 이목을 집중시킨 이진상은 뉘른베르크 심포니, 밤베르크 심포니,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WDR 방송 교향악단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세계적인 음악가로 자리 잡았다. 게자 안다 콩쿠르 실황 연주 음반, 2011년 스타인웨이 고(古) 피아노와 현대 피아노 두 대로 녹음된 힐러-멘델스존-쇼팽의 연주곡 음반, 2015년 슈만의 소나타 모음집을 출판했고, ‘베토벤 트리오 본’과 함께 녹음한 “Georgy Sviridov”(2017), 2020년 12월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한 베토벤 트리오 전곡 연주 음반을 발매해 화제를 모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쾰른 국립음대와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친 그는 완벽한 소리에 대한 갈증으로 테크니션 슈테판 크뉴퍼를 사사하며 스타인웨이 오스트리아에서 피아노 테크닉을 공부하였다. 2015년부터 ‘베토벤 트리오 본 (Beethoven Trio Bonn)’의 피아니스트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 KBS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선도하는 교향악단으로 성장했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 이후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와 같이 세계 정상의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고,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했다. 교향곡에서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고 흥미로운 레퍼토리로 클래식 음악의 지평을 넓혀가고 중이며,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다채로운 음악적 접근과 청중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초청 및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명 이상의 관객과 만나고 있다. 2018년에는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공연 실황 음반을 발매하고,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 초청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 특별연주회 등을 통해 문화외교 사절단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냈으며, 여수음악제, 벚꽃축제 음악회, 직장

인 콘서트 등 친근하고 새로운 시도로 대한민국의 클래식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프로그램

RACHMANINOV SERIES

7.11(SAT) 5PM

Piano Concerto No. 2 in c minor, Op.18 피아노 협주곡 제2번 (협연: 백혜선)

Symphony No. 2 in e minor, Op.27 교향곡 제2번

11.06(SAT) 5PM

Vocalise Op.34 No.14 보칼리제 (오케스트라 버전)

Rhapsody on a Theme of Paganini, Op.43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협연: 이진상)

Symphony No.3 in a minor, Op.44 교향곡 제3번

* 위 프로그램 및 출연자는 단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